



32명민호 인양... 실종선원은 없었다

해경, 4일 선미 인양... 제주항으로 옮겨 정밀감식 인양 장소 인근 해저에서 실종선원 시신 1구 발견 남은 실종자 4명... 선미 발견 해역 중심 수색 나서

제주시 제주항 북서쪽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32명민호의 선체 일부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 작업이 진행된 인근 해역에선 실종된 한국인 선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크레인이 장착된 바지선과 예인선을 투입해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에서 32명민호 선미 인양 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선미에 사고 당일 선원 5명이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곳에 실종 선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선미는 스크루와 엔진룸, 침실 등이 포함된 부분이다.

해경은 바지선 고정 작업 등을 거쳐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인양 절차에 들어갔다. 인양은 수중에서 선체에 줄을 고정하면 크레인으로 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인양작업에선 선미에 위치한 기관실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인양됐다. 이후 선체의 양말기가 수면 위로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다. 양말기와 함께 얽혀있던 그물도 이 과정에서 함께 건져졌다.

이후 해경은 수중에서 선미 주위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실종자들이 선미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시간에 걸친 준비작업 끝에 오후 1시쯤 32명민호의 선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선미는 사고 당일 제주항

서방파제에 부딪힌 충격으로 가늠케 하듯 앞과 뒤 모두 절단되고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해경이 선미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미를 제주항 제7부두로 옮겨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도 멀리서 선미가 인양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가족들은 인양이 이뤄지고 있는 바지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양 작업 과정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선미가 끌어올려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 이날 낮 12시30분쯤 바지선이 설치된 인근 해저에서 32명민호 한국인 선원 A씨(67)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인 선원 시신, 지난 3일엔 선장 김모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3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32명민호의 남은 실종 선원은 한국인 1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4명이다.

해경은 선미 부분이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 한림 선적 제인망어선 32명민호(32t)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성산항에서 출항해 한림항으로 향하다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 47분쯤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강다혜기자



제주해경이 4일 제주항 인근에서 침몰된 32명민호 선미 부분을 인양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인양작업 현장 인근 해저에서 실종 선원 1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제주경찰청장에 강황수 치안감 발령

경찰청 치안감 인사 단행 제주출신 고기철 경무관 서울경찰청 차장에 내정



신임 청장은 1989년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전북 완주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정보과장, 전북 익산경찰

신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 강황수(57·사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내정됐다.

경찰청은 4일 강 국장을 제주경찰청장에 발령하는 등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강 신임 청장은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강

서장, 전주안산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전북경찰청 제2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제주출신 고기철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부장(59·간부 후보 38기)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으로 내정됐다. 이상민기자

서귀포혁신도시 제1생활치료센터 본격 운영

코로나19 경증 환자 11명 첫 입소

도내 코로나 병상 332개 4일 현재 가동률 45.7%

지난 연말 서귀포혁신도시 내 국제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제1생활치료센터가 개소후 첫 입소자를 맞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11명의 확진자가 5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고 4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경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과 의료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340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도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1호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연령, 기저질

환(당뇨, 만성 질환자 등) 및 특수상태(임신부, 투석환자 등) 등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병상으로 배정하거나 연령대가 높지 않고 기저질환이 없는 경증(무증상 포함)인 확진자는 의사의 판단하에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킬 예정이다.

현재 도내 병상은 총 332병상(제주대학교병원 128, 서귀포의료원 95, 제주의료원 109)으로 4일 오전 11시 기준 45.7%의 가동률을 기록 중이다.

한편 제1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은 의사 4명과 8명의 간호사, 1명의 방사선사가 파견 또는 상주하며 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임태봉 코로나대응추진단장은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과 센터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입소 환자 수 추세에 따라 의료인력 추가 배치 및 편의시설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출입자 명부 작성 않은 일반음식점 등 30곳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희시설 4곳 형사고발

제주시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관내 음식점을 비롯해 유희시설과

목욕업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음식점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희주점과 단란주점이 각각 2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대다수는 오후 9시 이후에 손님을 받거나 이용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였다.

제주시는 이번엔 적발된 30곳 중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유희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유희시설은 제주형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 자체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시정명령에도 다시 지침을 어긴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명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문화예술인 117명 제2공항 건설 반대 선언

제주 문화예술인 117명이 '2공항 건설 반대 제주예술인 선언'을 통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제주가 더 이상 참혹한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부수는 제2공항 건설에 윤명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내놓은 '제주예술인 선언'에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은 제주의 하늘과 땅에 기대어 노래하

고, 춤을 추면서 제주의 대지에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언어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왔다"며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제주가 더 이상 참혹한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개발특별법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까지, 관광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법과 제도는 제주 공동체를 경쟁의 악다구니 가득한 야비관으로 만들어놓았다"면서 "제2공항은 그 고통의 악무한을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년 신축년갑자이벤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최대 50~70%할인
탐나는전·제로페이 가능

샴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총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州(州) 리모델링
辛(辛)一(一)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하트메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시정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묘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하트메감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루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전, 홍진, 남진해(키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종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봉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